



“원도심 야간관광 콘텐츠 적극 발굴해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위

박호형, 역사·문화자원 잇는 야간 관광벨트 구축 주문

관광객 체류시간 늘려 지역상권 소비 확대 필요



박호형 의원

제주를 찾는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상권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원도심 야간 관광 콘텐츠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은 17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54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

으로 삼정현, 오현단, 신산공원 등 원도심의 역사·문화자원을 하나로 연결한 야간 관광벨트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시민의 생활시간을 밤까지 확장해 관광과 골목상권 활성화로 연결하는 정책을 예로 들며 제주도 역시

야간 관광 콘텐츠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관덕정 야간 개장 행사와 관련해 “관람객이 2022년 8200명에서 2023년 2만3400명, 2024년 2만2000명, 2025년 7만명 이상으로 최근 3년 사이 8.5배가 증가했는데 관람객 대부분이 관광객이다”면서 “관덕정 행사를 삼정현과 오현단, 신산공원 등으로 연결해 투어를 만들어 가는 것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며 야간 관광 계획을 제안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황경선 제주도 관광교통국장은 “현재 관덕정을 비롯해 천지연과 새연교, 동문시장과 매일올레시장 등이 야간 관광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면서도 “관광객들의 체류시간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원도심 야간 관광 벨트 등도 콘텐츠 발굴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관광객들이 저녁 시간대에 갈 만한 관광지의 선택지가 충분하지 않다며 야간 관광을 통한 소비 확대 필요성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1300만명 수준이다”면서 “이중 10%만 (야간 관광에)유인해도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어려운 지역 경기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야간 관광 정책 등을 발굴해 달라”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위성곤 제주지사가 김성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만나 정부 지원 등을 요청했다. 제주도 제공

위 지사, 기후부에 'ESS 망 이용료' 면제 건의 김성한 장관 만나 국비 지원·제도개선 요청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김성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부과되는 망 이용료(본보 8월 13일자 2면 보도) 면제를 비롯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국비 지원과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날 위지사는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김 장관을 만나 해상풍력, 전기요금, 생활영역 전기화, 탄소중립 이행제도 등과 관련한 현안을 설명하고 정부의 지원과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위지사는 올해 연말 발표 예정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제주권 해상풍력 5GW를 권역별 개발물량으로 반영하고 이 가운데 추자해상풍력 2.37GW를 핵심 후보물량으로 우선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육지로 전력을 보낼 수 있도록 국가계통 연결도 함께 건의했다. 또한 제주에서 생산한 청정전력이 요금·규제 제도에 지역 여건에 맞게 반영되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요청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을 맺은 자원과 배전망 ESS에 부과되는 망 이용료를 면제하고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에 제주를 포함하거나 제주 특성을 반영한 별도 조정요금을 산정에 줄 것을 요청했다.

생활영역의 전기화를 앞당기고 도민의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히트펌프와 전기차 관련 국비 지원 확대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비중을 온실가스 배출량에 반영하는 '제주 지역 전력 배출계수' 도입, 블루카본·바이오키 등 제주 특화 탄소감축사업의 국가 공동실증을 건의했다. 1회용컵 보증금제의 대상 사업자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도 요청했다.

제주도는 이번 건의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후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수소 인프라 구축 저조... 정책 실효성 의문

강정범 “검증 없이 사업만 확대... 충전 인프라 확충을”

제주특별자치도가 에너지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그린수소 생산·활용 기반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인프라 구축 없이 성급히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정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17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54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수소와 관련한 인프라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제

기했다.

강 의원은 수소차 보급 확대와 관련해 “현재 구축된 시설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면서 검증 없이 사업만 계속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도는 올해 수소차량 79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9월 기준 7대를 제외하고 모두 보급을 완료했다. 하지만 도내 수소



강정범 의원

충전시설은 제주시 조천읍 '함덕 그린수소충전소' 한 곳 뿐으로, 인프라 시설이 부족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제주시 도두지역에 추진 중인 이동형 수소충전소의 운영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서부지역의

화순 인근 해역 바다숲 조성 갯녹음 회복 해조류 등 이식

서귀포시 화순리 인근 해역에 160ha 규모의 바다숲이 조성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부산 한국남부발전 본사에서 해양수산부, 한국남부발전, 한국수산자원공단과 '2026 민간협력 바다숲 조성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13억원을 투입해 화순리 인근 해역 160ha 규모의 바

다 숲이 조성된다. 바다숲 조성사업은 갯녹음으로 피해를 입은 연안 해역에 해조류가 다시 자랄 수 있게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갯녹음은 연안 암반 지역에서 해조류가 사라지고 석회조류가 암반을 덮어 바닷속이 하얗게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화순리 인근 해역에서는 해조류 이식과 포자 확산단지 조성, 조식 동물 제거, 서식환경 개선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해조류의 자연적인 회복과 확산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월 10만원 저축시 5년 뒤 2040만원에 이자까지 도, 중장년 중소기업 재형저축 사업 참여자 모집

제주지역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40~64세 노동자가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기업과 제주도가 각각 12만원씩 보태 5년 뒤 목돈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장년 노동자의 자산형성과 중소기업 장기재직을 지원하는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 3차 참여자를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노동자가 매달 10만원을 내면 재직 중인 기업과 제주도가 각각 12만원씩 추가 적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가령 5년 동안 노동자가 600만원을 납입하면 기업과 제주도가 각각 720만원씩 보태 총 2040만원이 적립되고 만기에는 이자까지 더해져 돌려 받을 수 있다. 이상민기자

제주도, 청사 명칭 '제1·2·3청사'로 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청사 명칭을 배치 순서대로 '제1청사·제2청사·제3청사' 번호 체계로 개편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5월부터 도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명칭을 공모하고 도청조정위원회 심사와 선호도 조사 등 내부 논의를 거쳐 이같이 최종 확정했다.

기존 제1청사 본관동과 별관동

은 제1청사로, 구 제주경찰청사 본관동 및 1~4 별관동은 제2청사, 기존 제2청사 본관동 및 1~3 별관동은 제3청사로 개편됐다. 개편 초기의 혼선을 막고 새 명칭이 빠르게 자리 잡도록 일정 기간 종전 명칭을 함께 표기할 방침으로 제2청사는 '제2청사(구 제주경찰청사)', 제3청사는 '제3청사(구 북군청사)'로 병기한다. 오소범기자

아름다운 노후! 일하는 노후! 행복한 노후!

‘병원동행매니저양성과정’

참여자 모집

■ 모집구분

교육명	교육회차	모집인원
병원동행매니저양성과정	총18회차 (회차별2시간)	30명

*상기교육회차는 교육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조정될수있음

■ 개강일 : 2026년 10월 7일(예정)

■ 신청대상

○ 만60세이상 관련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 제주도 실거주자에 한함

■ 신청기간: 2026. 09. 21(월)~09. 30(수) 09:00~18:00
(공휴일 및 평일 점심시간 신청불가)

■ 신청방법 : 제주시니어클럽 (방문접수)
제주시 중앙로 165 교육복지플러스센터 5층 (구, 상록회관)

■ 기타사항 : 교육참여자발표(개별연락)

■ 문의전화 : 064-745-3999

■ 지원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기타 : 해당과정 수료 후 노인일자리 참여기회

사회복지법인 섬나기

제주시니어클럽

2026년도

제29회 이중섭그림그리기대회

■ 일 시 : 2026년 10월 17일 토요일 11시 (*우천시에도 대회 진행합니다)
(사전 작품 접수 : 10월 1일 ~ 10월 8일)

■ 장 소 : 서북전시관 전다광장 (천막, 테이블, 의자 설치)

■ 참가대상 : 대한민국 국민 해당 부문 누구나
부문 : ①유치부, ②초등(저학년)부, ③초등(고학년)부, ④중고등부

■ 주 제 : 이중섭의 아름다운 꿈 “가족 사랑과 서귀포의 향상”
(이중섭 화백이 서귀포에서 가족과의 행복했던 생활, 서귀포의 자연, 역사, 유물, 유적, 미래 등)

■ 접 수 처 : 행사장 운영본부

■ 사전 작품 접수처 :
한국예총 서귀포지회 사무실(우편 및 방문) 064-739-3287
(63567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감정문화로 36(감정문화회관 내))
* 작품명, 이름, 학교명, 학년, 반, 연락처를 작품 뒷면에 기입해 주세요.
상장 : 우편발송 예정.

■ 진 행 :

• 현장 접수 : 대회 당일

• 대회 당일 : 11시 ~ 12시 참가자 등록 및 도화지 배부

• 작품 제출 : 16시 ~ 17시 행사장 운영본부

• 심사 및 시상 : 수상자는 언론, 서귀포예총 홈페이지 발표 및 개별 통보
상장 : 우편발송 예정.

상격 및 준격	유치부 (만6세이하)	초등저학년 (만7~12세이하)	초등고학년 (만12세이상)	중·고등부 (만18세이상)	시상내역
대 상	한국예총 서귀포지회회장	1명	1명	1명	상장 및 30만원
금 상	한국예총 서귀포지회장상	1명	1명	1명	상장 및 20만원
은 상	한국예총 서귀포지회장상	2명	2명	2명	상장 및 10만원
동 상	한국예총 서귀포지회장상	2명	2명	2명	상장 및 5만원
입 선	한국미술협회 서귀포지부회장상	00명	00명	00명	상장

※시상금의 제세공과금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 참가자 유의사항 :

- 돗자리, 그늘막 등 필요 물품은 본인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참가자 본인 외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 실격 처리됩니다.

- 운영본부에서 제공하는 도화지를 사용하여, 그 외 그림도구는 본인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시간 내 작품을 완성하여 제출합니다.

- 대회 종료 후 자신의 자리를 정리하고, 쓰레기는 가지고 돌아옵니다.

주최 : 제주특별자치도 | 서귀포시

주관 : 한국예총 서귀포지회

해안동

가족모지 매매

80년대 제주시에서 조성한

사설공원모지 2부락

지 번

제주시 해안동 355-61

지 목

모 지

면 적

665㎡(200평)

연 락 처

010-5697-5224

그랜드보청기

한가위 고객감사 대축제 물가안정 이벤트

① 50%특별할인 ② 15만원 상당 UV전자 습기제거제

그랜드보청기

히트브랜드 대상!!

충전형 귀속형 보청기

충전형 귀걸이 보청기

'국민건강을 위한 상생협력제품 판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샬송돌 흔저 전화 주심서! 기다렸습다!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중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향

건강보험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서서라 사거리 북동쪽

시청방면 1층 삼검구이 서광로 225 2층

그랜드보청기

제주서비스매점